

세뱃돈 대신 '문화 선물' 어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전시회·공연 풍성

아이들 학력·수준 맞는 책 선물도 좋아

한국은행이 분석한 한해 세뱃돈은 대략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세뱃돈 탓에 아이들이 돈을 무겁게 알거나 분수 넘치는 소비를 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올 설에는 아이들에게 돈 대신 전시회와 공연, 책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 선물을 보자.

◇상상력을 키워주세요=4인 가족이 2천원만 내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만화 만화(漫畵 萬話)'전(21일까지)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줄 다양한 만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광주시립미술관 '신 소장품전(5월30일까지)'은 천경자 화백의 여인, 꽃, 동물, 누드와 허건의 '하경산수', 고 배동신 화백의 수채화 등 남도 회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이

들 전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입장권은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성인 500원.

광주신세계갤러리의 '호호화화'(虎虎畵畵)전은 온 가족이 호랑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호랑이 해' 신년 계획과 다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시이다.

◇가족과 보면 기쁨 두 배=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공연은 저렴한 가격(5천~1만원)에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19일에는 국악관현악단이 민요 '아리랑'을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한 신년음악회 '아리랑, 전라도 아리랑'을 선보이며 20일에는 교향악단이 드뷔시의 '바다'와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를 들려준다.

또 25일에는 무용단이 '카르멘' '해적' 등 유명발레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무대를 마련했으며 소년소녀합창단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준비중이다.

그밖에 19~21일까지는 퓨전 타악 그룹 '팜스타' 공연이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가족라이브 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공주'(27~28일) 등도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공연이다.

◇함께 읽고 고민해보요=출판사별로 설을 겨냥해 책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고 인터넷 서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도 계층별로 추천도서 목록을 올려 놓고 있다.

아이들의 학년과 수준을 고려해 '추천도서' 목록을 선정하면 다음 3권씩 정도 선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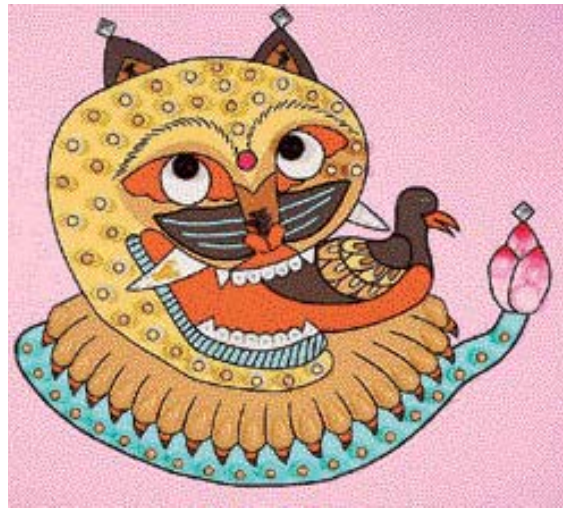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그림책, 고학년인 경우 과학학습만화 'WHY? 와이' 시리즈(예림당 펴냄), '어린이 살아있는 세계 교과서'(휴머니스트 펴냄) 등 교양 학습서가 제격이다.

중·고등학생일 경우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등을 참고해 선정하면 도움이 되며 인생지침서, 추리·판타지소설류, 고전 문학작품 등도 인기 품목이다. 수능에 도움이 될만한 한국고전 문학류나 민음사, 창비, 문화동네 등에서 발간한 '세계문학전집'도 권장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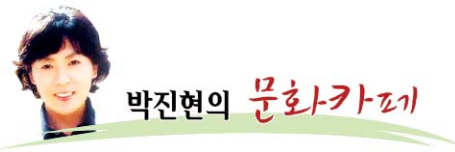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조대원 작 '비즈니스'



서희화 작 '호랑이 초콜릿케이크'



박진현의 문화칼럼

광주는 말리의 '서울 부활'을 보고싶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1860년~1911)는 지휘자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그가 지휘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는 유럽 전역에서 매번 매진을 기록했다. 포드엄(지휘대)에서 만큼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었지만 작곡가로서의 시작은 그다지 산뜻하지 못했다. 1889년 초연된 교향곡 1번 '거인'에 대한 비평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생전 말리는 총 9개의 교향곡을 남겼다. 여는 작곡가들이 불규칙적으로 작곡을 한 것과 달리 말리는 모범처럼 처음 1~2년에 걸쳐 교향곡을 하나씩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작곡패턴에서 벗어난 작품이 있었다. 교향곡 2번 '부활'(1888~1894)이다. 다른 교향곡들이 1~2년에 완성된 것과 달리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작곡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등 악재가 겹쳐진 탓이다.

교향곡 2번 '부활' 작곡 기간인 1891년 함부르크에서 만난 당대 최고 지휘자 한스 폰 빌로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빌로는 말리를 눈여겨보고 그를 초청해 작곡한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듣다가 두손으로 귀를 막았다. 감상 소감을 묻는 말리에겐 "만일 그런 걸 음악이라고 한다면, 나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 같네"라는 독설을 던졌다.

빌로와의 만남은 말리에겐 치욕이 힘든 좌절을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향곡 '부활'은 빌로 덕분에 세상에 나왔다. 마지막 악장을 남겨두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전하던 말리는 1894년 빌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다. 장례식장에서 성가대가 부르는 클롭슈톡의 '부활'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클롭슈톡의 시를 교향곡의 가사에 차용해 합창 등이 한 데 어우러지는 데 서사시 '부활' 교향곡을 완성하게 됐다.

세기말의 고독, 인생무상을 슬직하게 드러낸 '부활'은 21세기 클래식 연주회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말리의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탄생 150주년인 올해는 광주시향을 비롯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 부산, 부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말리 음악회가 예고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향이 5·18 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활' 서울연주회(5·18일 예정)가 무산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예술의 전당 대관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뒤 마땅한 공연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했다는 예술의 전당 측의 설명에도 아쉬움과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5월 전국화'는 여전히 광주와 희망사항 뿐인가 보다. "5·18은 광주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다. '부활' 5악장의 합창 부분 가사는 80년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는 구자범 광주시향 상임지휘자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 살리라, 너 피흘러/ 오 그대, 너 뜻없이 산 것 아니라~/ 빛을 따르자, 다 죽었으나/ 모두 다시 살아나리~/ 살기 위해 죽으리라~/ 자 일어나, 내 사랑아, 너 일어나..."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김남주 시인 추모제

해남 출신 고(故) 김남주(1946~1994) 시인 16주기 추모제가 7일 '민족시인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윤)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고재중) 주최로 5·18 구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는 유족들과 후배 문인들이 참석해 추모시 낭송, 기념사업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문진위 2010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157건 5억 6,600만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택)는 지난 5일 '2010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25~28일까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모두 157건, 5억 6천600만원. 선정율은 32%로 지난해의 49%보다 낮았다. 2009년에는 215건, 4억3천800만원이 지원됐다.

단체당 평균 지원액은 2009년 200만원에서 2010년 36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르별로는 미술 부문이 1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받았

으며 문학(8천200만원) 국악(7천200만원), 음악(7천200만원), 무용(7천100만원), 연극(6천200만원)순이었다.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광주 현대무용단, 김미숙 하나무용단, 열수,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관산농악보존회, 극단 푸른연극마을, 놀이책 신명 등 15개였다.

올해부터 점수제를 도입했으며 심사 위원도 일괄 발표했다. 선정 내역은 홈페이지(<http://www.gja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57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1학년도 대학편입

편입영어 개강 ▶ 3월 2일

당신의 최종학력은 김영에서

www.kimyoung.com

왜 편입이면 김영인가

현지 편입 상담전문 김영편입학원

문의 222-8888

광주 MBC 문화탐방

무안 지우현 지방 특급호텔

특급 개장 14호부, 세련된 침실실, 최고급 식사, 힐링사계

무안 ↔ 장사 직항

★ 단 5회 운항만 3/13, 3/17, 3/20, 3/24, 3/27

₩ 699,000~

항공	호텔	식사	기타
4회 3/17, 3/24	₩ 699,000		
3회 3/13, 3/20, 3/27	₩ 749,000		

광주 MBC 문화탐방 전체가 사무실 062-226-6070